과학도 철학도 어떠한 것도 마음의 한 점에서 나옵니다

☞25면에서 계속

고 그래서 은하계가 생기고, 또 그것이 생겨서 태양계가 생기고, 태양계가 생기면 또 은하계도 많아지고 혹성도 많아지고 별성도 많아지고, 태양계도 많아지고 이러는 원인이 우리네 마음의 그 불씨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을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긴 얘기와 짧은 얘기를 엄청나게 한다면 여러분이 오히려 '이게 정말 이럴까?' 하고 뒤로 물러설까 봐 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한 것만은 다 이해해서 듣고, 모든 것은 바로 각자 여러분이 아니었더라면 이 세상이 없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각자 여러분이 없었다면 내 가정도 상대도 세상도 모두가 무효라는 거, 여러분으로부터, 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부터 이 세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 저런 일 생긴 것도 여러분의 마음 탓입니다. 자기가 마음으로써 끌고 다니는 육체를 함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제는 좀더 비장한 각오를 가지시고 '내 마음의 주인, 영원한 친구! 그 친구가 나를 이끌어 가지고 갈 것이다. 나를 자유스럽게 만들 것이다. 나를 발전하게 할 것이다. 내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 것이다. 모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한마음의 주인공에 전부 가설이 돼 있으니까 둘 아니게 이끌어 갈 것이다.'라고 믿으세요. 모두 가설이 돼 있는 겁니다! 자식이라는 것도 알고 부모라는 것도 아는 그 마음의 줄이 바로 얽히고설켜서 가설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모든 주위의 환경도 전부 자기 탓이라고 돌리시고, 자기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고 '주인공!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지 마라!' 하고 거기다가 맡기세요. 진짜로 발전하고 경험을 얻고 실험하고 체험하고 나가시려면 꼭 내 주인공을 믿고 꼭 거기다 맡기시고 일임하고 주인공과 더불어 자문자답하시고, 울더라도 주인공을 잡고 우세요. 그런다면 좀더 멋있는 살림살이가 형성될 겁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시라 그래도 안 하니까 말입니다. 그래, 질문해 봐요.

질문자1(남):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큰스님: 제일 좋아하는 음식요? 나는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없어요. 오는 대로 나누어 먹고 가는 거 잡지 않아요.

질문자1(남): 얼마큼 드십니까?

큰스님: 그것도 대중없어요. 먹기 싫으면 안 먹고, 먹고 싶으면 먹으니까요.

질문자1(남): 하루 종일 드십니까?

큰스님: 하루 종일 굶을 때도 있었고, 하루 종일뿐만 아니라 젊었을 때는 굶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굶었다고 굶은 게 아니죠. 여러 가지로 먹을 걸 걸머지고 다니지 않으면 먹을 게 생기는 거고요, 먹을 걸 짊어지고 다니면 먹을 게 안 생겨요. 참 그게 아주 묘한 도리죠. 여러분도 한마음을 느끼시고 그렇게 한번 실험해 보세요. 주인공에다가 맡기시고요. 또 질문하실 분 없어요?

질문자2(남): 부처가 부처가 아니고 중생이 중생이 아니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큰스님: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처 속에 중생이 들어 있고 중생 속에 부처가 들어 있으니 어찌 둘이겠소? 이거 봐요. 댁의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불(佛)이라면 불이 없어서도 안 되고 바로 여러분 자체가 없어도 안 되죠? 그러니까 중생이자 부처고 부처이자 중생이에요. 따로 부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법당에 들어가면 그 부처님의 형상이 내 형상이고, 아까 '일체제불의 마음'이라는 노래 불렀죠? 일체제불의 그 마음이 내 한마음이라는 거, 그 노래를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렇다면 부처 중생이 둘이 아닐 테니까요. 우리들의 마음을 깨닫고, 또는 우리가 다 물리가 터져서 제대로 파악한다면 부처고 중생이고 언어가 붙을 자리가 있을까요?

> 꼭 내 주인공을 믿고 거기다 일임하고
> 주인공과 더불어 자문자답하면서
> 울더라도 주인공을 잡고 우세요

질문자3(남): 사후의 세계가 있습니까?

큰스님: 사후의 세계요? 이 자리가 사후의 세계도 되고, 이 자리가 지금 현재의 세계도 되죠. 왜냐하면 삼천 년 전도 오늘이요, 삼천 년 후도 오늘입니다. 오늘도 공해서 쉴 사이 없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도, 천당도 이 자리고 지옥도 이 자리고, 하하하…, 죽는 자리도 이 자리고 사는 자리도 이 자립니다. 그러니까 어서 하루 바삐 깨쳐서 여러분이 훨훨 날아 보십시오.

질문자4(남): 큰스님께서 수행하실 때 말입니다, 두 번 죽고 한 번 나투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죽는다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큰스님: 죽는다는 뜻이요? 그렇게 질문을 해야지 말이 나오지요. (대중 웃음) 여러분이 여기에 걸어 들어오실 때 발자취를 짊어지고 들어오지 않으셨죠? 네?

걸음을 한 발 한 발 떼어 놓는 대로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살아가는 것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그냥 그냥 막 돌아가요. 그 도리를 알고 내 주인공 거기다가 모든 것을 놓는 것이, 돌아가는 거기 한군데다가 뭉쳐 놓는 것이 바로 죽는 거예요. 나 하나를 나 하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포괄해서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죽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죽는다, 내가 아프다, 내가 했다, 내가 망했다, 내가 부자가 됐다, 내가 있다' 이러죠?

그런데 진리를 볼 때에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각자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돌아가고, 이것이 됐다가 저것이 됐다가,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이것도 봤다 저것도 봤다 하니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돌아가요.

그래서 한마음 주인공을 깨달으면 그 도리를 알게 돼요. 물리가 확 터지니까요. 왼쪽 두뇌, 바른쪽 두뇌 이 상반이 작용을 하는데, 내가 말할 땐 이렇게 합니다. 송과체 통과제가 이 모든 작용을 하는 한 점에 그 뭐라고, 불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확산을 시켰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는 작용을,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도리를 알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러면 죽는 것도 알고 사는 것도 알죠. 나중에 가서는 죽고 사는 그런 것이 바로 무효다 하는 것이 돼요. 또 질문할 거 없어요?

질문자5(남):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큰스님: 우리가 지구에 한데 붙어서 사는 생명들인데 다른 종교가 따로 있겠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건 각자가 '이거는 내 종교다' 하고 창살을 만들어 놓고 창살 바깥을 못 나가는 것뿐이지, 그건 개별적인 자기의 생각일 뿐이지 진리를 생각한다면 모든 게 한군데에 있습니다. 즉, 조각조각이 나서 국한돼 있는 게 아니고 전체가 같이 돌아가는 진리이기 때문에 마음을 넓게 크게 가지라는 얘깁니다. '요거는 내 종교다' 하고 발 한 짝을 놓지 못하는 소인은 중생이라 하고, '내 마음은 어디든지 통해 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깨달은 자유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옹졸하면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이고 바늘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에 마음을 넓게 가지고 넓게 보시고, 영의 세계나 유체의 세계나 모두가 둘이 아니게, 이 세상만사가 다 그렇게 같이 돌아간다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이 회색 옷을 입은 것도 살아 있다 죽었다, 여자다 남자다, 동이다 서다 이러는 것이 없이, 그러니까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다는 뜻에서 이 먹물옷을 상징으로 입은 것입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도 중심을 제대로 두셔야 합니다. 중심이 즉 돌아가는 심봉과 같은 겁니다. 핵 자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와 전자가 붙으면 에너지가 나오듯이 유체 무체가, 무심이 한데 합쳐지면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건 제각기 마음 먹기에 달린 거지 그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라는 건 무한량이기 때문에 넓게 쓰면 넓은 것이요, 둘이 아닌 것이요, 또는 좁게 쓰면 만날 각자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벌어져 있다 하더라도 전부 하나인데 모두 각자가 마음을 잘 먹지 못하기 때문에, 잘 쓰지 못하기 때문에, 행을 잘 못하기 때문에, 조건 있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조건 없는 사랑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그렇게 가기 때문에 융합이 되지 않고 그저 이거는 너의 집 이거는 내 집, 너 나 이것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무궁화꽃 진달래꽃 연꽃, 이 꽃 저 꽃, 꽃이 수없이 많지만 무슨 꽃 무슨 꽃 해서 꽃은 하나지 둘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꽃은 많지만 꽃이라는 그 자체는 하나입니다.

질문자6(남): 큰스님, 책을 보니까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 죽이다 보면 신통력까지 나타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신통력까지 못 버리고 거기 휘말려 버리면 무당이 되고 그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무당이나 그런 신통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나 점을 봐 주고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큰스님: 이거 봐요. 내가 이 물컵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오고 가고 이렇게 했어요. 이걸 볼 수만 있어요. 이게 무당이 하는 짓이에요. 볼 수만 있는 것은 도가 아니요, 듣는 것만 해도 도가 아니요, 가고 올 줄 안다고 해도 도가 아니요, 남의 마음을 빤히 다 안다고 해도 도가 아니요, 모두가 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내가 봤으면 집어다가 주기도 하고 먹을 줄도 알아야 그게 진짜 도예요. 먹지 못하는 건 아무리 봐도,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신통이 다 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신통이라는 것이 만약에 통이라면 통 안에 있을 때는 통을 굴릴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벗어났다면 이거를 마음대로 굴릴 수가 있겠죠. 그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이거를 마음대로 굴릴 수 있다. 배고픈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자기가 배고프면 먹을 수도 있지만, 통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영영 이거를 굴릴 수 없다. 즉 말하자면 중용을 못한다 이 소리죠.

질문자6(남): 그 통 밖을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마음을 내고 그런 걸 해도 실천이 안되는 겁니까?

큰스님: 하는 사이 없이 하게 되는 것이 그대로 법이에요. 우리 생활 자체에, 깨달은 분들은 생활 자체에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죽이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이 세상으로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생활 자체가 여여한 거죠. 이 도리를 공부한다면 엄청난 도리를 알게 돼 있고, 살아나가는 데 모든 것을 좀, 아주 능통하고 능률 있고 아주 푸근하고, 정말 어떻게 말로는 형용할 수 없이 부자인 것입니다.

사회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법문을 들으시고 의문점이 대단히 많으시겠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가 있을 걸로 믿고 질문을 생략할까 합니다.

큰스님: 그럼 여러분, 바로 자기들을 끌고 다니는 마음의 주인을 진실히 믿고 거기다 맡기시고, 거기서만이 나를 이끌어 준다는 그 믿음! 앞에 닥치는 것대로 거기다 맡기고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지켜보시고 거기에서 실험하시고 체험하세요. 그렇게 해서 연방연방 마음을 넓혀 가세요. 정말입니다. 정말 좋은 도리이고 묘법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위 법문은 1992년 5월 20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토종약초 향토이야기

달마스님

KBS, MBC, SBS 방송출연 토종약초 30년간 연구 식약청 약초약품 허가. 팔도명산 바위틈에서 자생하는 각종 야생약초 만병초, 칠선초, 당귀, 용담, 천상무, 오가피 그 외 100가지 보유

* 비만, 다이어트, 뱃살제거(한달에 2.3 KG 빠짐) – 칠선초 ₩98,000
* 아토피–지리산 비단풀, 만병초, 상황버섯, 100% 확실 – ₩98,000
* 골다공증, 뼈부러진데 – 토종약초 ₩98,000
* 허리 아픈데 – 토종약초 – ₩98,000
* 당뇨(합병증), 간경화, 위장병, 고혈압 – 토종약초 (특수비방) ₩98,000
* 만성변비– 토종약초 별 방법해도 안되시는 분 ₩98,000
* 코골이, 비염 – 토종약초 특수비방 ₩98,000
* 각 종 암 – 지리산 비단풀, 만병초, 상황버섯 100가지 토종약초

그 외 필요한 건강무료상담. 성불하십시오

TEL : 051)866-1138, 010-6413-1388
농협 813083-52-062061 정광채
네이버 검색 부산 천황사 방송보기 클릭

漢文 한글 〈겸용〉불교상용 의식집 (수정판) 안내!

겸용 의식집 5권이면 漢文염불, 우리말 염불, 경전공부까지 다른 책이 필요 없게 만들었습니다!

卍. 내용소개 – 염불내용 알고 집전하는 의식집

1. 한문염불(기존염불)과 한글염불(경전 내용으로 조직)을 집전자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택하여 집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2. 경전의 내용으로 (한글염불+한문염불)을 부분마다 겸하여 조직을 하므로 독송이나 읽음으로써 염불과 경전공부를 한번에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3. 겸용 의식집은 염불의 순서대로 조직하여 누구든지 쉽게 집전할 수 있도록 하고 염불 위주로 간편하게 편찬하여 출장시에도 편리하며 소장용이 되지 않도록 염불외의 내용은 가급적 배제 하였습니다.
4. 겸용 의식집은 염불중(운운)을 없게 하고 집전자의 애로를 배려하여 염불이 약한 집전자나 초보자도 할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5. 염불방법 한가지 소개한다면 – 삼청하는 청사를 (2청은–기존염불). (1청은–우리말) 염불로 한다면 염불과 경전공부를 한번에 하므로 별도의 노력 없이도 우리말 염불과 경전공부를 쉽게 숙지 할수 있게 될것을 확신합니다.

구 성

제 1권 (예경 / 각청편) – 15,000원
제 2권 (천도 / 시식편) – 15,000원
제 3권 (수계 / 방생편) – 13,000원
제 4권 (장의편) – 13,000원
제 5권 (점안편) – 15,000원 [全 5권 71,000원]

◆문의 및 주문전화
054)974-1345 / 011-277-8024
전국 불교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농협 735091-52-058288 박명덕

한방(韓方)치료로

간경화, 간질
갑상선항진증, 결핵성 임파선염
백납, 뇌수종
산후풍, 수족냉증
불임, 갱년기(울화)병

한솔한의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423-중-5041호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중생구제와 자비실천을 함께하실 스님, 포교사, 법사님을 모십니다

종정대행 총무원장 월산 혜봉

※ 준비서류 및 서류 발급
◆ 종단 입종신청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 입종하시면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
※ 각 지역별 간부직 소임자를 우선 모십니다. 연락바랍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전화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혜봉스님 직통 011-545-5060